

# 문수 스님, 그 후 1년

## 생명평화대화마당 추모 기간 중 분야별 명사 초청 강연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을 통해 4대강 사업 반대를 촉구한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4대강 사업은 추진 중이며 스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 문수 스님 소신공양선양사업 준비위원회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준)는 5월 30일~6월 3일 조계사 마당 '가피'에서 '생명평화대화마당'을 열고 문수 스님의 뜻을 생활 속에서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 할 일부터 알아야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법안 스님

“문수 스님은 왜 소신공양을 했을까? 4대강 사업으로 고통 받는 모든 생명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하고 위안을 준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법안 스님은 5월 30일 열린 첫째 마당에서 불자들에게 실천과 반성을 강조했다.

법안 스님은 “강에는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간다. 불교는 이런 작은 생명들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분별해서 바라보지 않는다. 문수 스님은 이처럼 생명의 소중함을 보고 느끼는 현장 속에서 공업의 흐름을 누군가는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소신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소통이 사라지고, 가진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던 정부를 향한 생명평화의 외침이었다는 뜻이다. 문수 스님은 마지막 유서에서 이명박 정권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재벌과 부자가 아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안 스님은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스님은 “사회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고, 성장 일반도의 정책은 가계 부채 증가 등 부작용을 날

으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제대로 된 여야영수회담도 없고, 시민사회와의 건강한 대화도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법안 스님은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은 수행자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다른 생명의 고통을 멈추게 한 중요한 사건이다. 추모기간 뿐 아니라 불자들 모두가 그 뜻을 실천하고 나부터 변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또한 불교시민사회가 더욱 발전해서 종단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범 기자



### 4대강 반대해야 생태활동가 최병성 목사

“신체의 일부만 다쳐도 거동이 불편하다. 생명을 구하고자 소신공양을 한 문수 스님의 희생은 대단한 일이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을 떠올리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자.” 최병성牧사는 'MB의 4대강 사업과 그 속에 묻힌 불편한 진실'을 주제로 5월 31일 둘째 마당을 열었다. 최 목사는 “4대강은 앞으로 수만년을 우리 후손들과 함께 흘러야 한다. 수만년 강의 역사에서 보면 4대강 사업은 점에 불과하다. 우리는 4대강의 수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병성 목사는 4대강 사업이 완공 단계에 있어도 지금이라도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이며 생명과 평가가 공존하는 길이라고 거

듭 강조했다. 현행 4대강 사업은 완공 후 다칠 수많은 재앙과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목사는 강엔 내내 외국의 자연형 하천 사업과 운하 건설로 인한 독일의 문제점과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표본이라고 내세우는 한강의 오염 실태를 비교했다. 독일 뮌헨은 150년 전 운하를 건설했다. 이후 홍수 발생과 생태계 파괴가 거듭되자 20년에 걸쳐 다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했다. 스위스는 직선형 하천으로 개발했던 투어강을 제방을 허물고 자연하천으로 되돌렸다. 최 목사는 4대강 사업 개발로 인한 국내 환경 파괴 사례와 수생역명고 평가가 공존하는 길이라고 거

점들을 설명했다. 4대강에서는 이미 97% 이상 홍수 대비가 완료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세우는 '홍수 조절' 기능은 거짓이라고도 지적했다. 오히려 무수한 보물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의 해수면 높이가 큰 차이를 보이는 사리현상이 발생할 경우 저지대의 침수를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완성되면 철새들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최 목사는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의 94%가 얇은 물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수면성 어류'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으로 강이 깊어지면 철새들이 살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최병성 목사는 “강은 흐르게 해야 한다. 우리의 강은 다시 흐를 것이고, 생명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문수 스님 그 생명을 때문에 소신공양 한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생명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 사회투명성 높여야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우리사회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출발선의 평등을 많이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투명성이다. 투명성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적 가치이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6월 1일 열린 셋째 마당에서 진

정한 공정사회를 위한 투명성 회복을 강조했다. 반값 등록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누구에게 지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처럼 청소부와 대학 총장이 임금격차가 크지 않고, 동등한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한국 사회 최고의 문제는 합리적 불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결과에 있기 때문에 출발선의 공정함만 강조해서는 해법을 구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합리적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렵다. 선진국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가 보편적이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기본적인 가치조차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과 갈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호 소장은 “출발선의 평등보다 합리적 불평등이 더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투명'이다”라고 밝혔다.



### 생명평화 실천해야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을 한 뜻은 중생의 안락과 평화를 위한 것이다. 스님의 뜻을 유서에 가두두지 말고 한반도의 생명평화 공동체 사회라는 창조적 가치로 해석해보자. 그것이 문수 스님의 뜻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다.”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은 ‘한반도 생명평화의 길’을 주제로 ‘생명평화 대화마당’ 다섯째 마당의 강연을 시작했다. 스님은 이날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 사회’라는 화두를 제시하면서 생명평화 공동체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화합을 강조했다. 도법 스님은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 사회는 문수 스님의 뜻을 살리면서 우리 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치다. 좌익과 우익, 진보와 보수도 모두가 가치의 실현을 위해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생명평화 공동체의 실현이 그 어떤 가치보다 상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립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스님은 또 이 가

치가 우리 사회의 상처 치유는 물론 냉전적 대립으로 인류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도법 스님은 “종단에서 결사와 불교중흥 토론회를 한다. 그러나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 사회를 위해 불교가 생명평화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이를 분명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불교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또 불교가 내부의 문제에만 전전공공하지 말고, 한국 사회의 문제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또 문수 스님에게서 중생의 생명평화를 위한 헌신적 실천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자들이 모두가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역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스님은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 불교가 노력하면 불교는 저절로 발전되고 중흥될 것이다. 큰마음을 내면 그것이 불씨가 되어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별기고〉 권위 지보사 주지 원범 스님

### 문수 존자를 그리워하며

종단의 자존과 종정스님의 유사를 받들고자 선방에 방부를 들여놓고 개혁에 동참한 스님의 공심에 함께 참여해 처절하게 눈물 흘리며 같이 보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1998년 종단 사태 때 공권력이 밀고 들어온 상황에서 스님은 도반의 안위가 걱정돼 총무원을 둘러싼 경찰 6000명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활복을 하겠다는 스님을 청사에 있던 제가 뛰어 내려가 말렸으나 훗날 스님의 소신 공양의 원인을 제공한 것 같아 13년 동안 한결같이 괴로움, 허전함, 미안함이 가득해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스님의 짧고 간결한 삶의 여정에 떨어지는 꽃잎처럼 급히 세상을 등지게 했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고자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스님의 큰 마음을 배울 수 있고 오고감에 걸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작설차를 유난히 좋아했지요. 내년에는 헛차를 구해서 제일 먼저 한잔드리고 담소 할 수 있겠지요? 생명이 없는 곳에 계시니

보고 싶을 때 보고, 차 마시고 싶을 때 같이 차 마시고 좋고 나쁘이 없는 편한 언덕에 계시니 얼마나 좋으신가요? 천년 집(부도탑)이 무슨 소용인가요? 그래도 스님의 송고한 뜻이 훼손되지 않게 조그맣게 도반들이 뜻을 모아 만들었으니 화가 나서도 참고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형식과 거주장스러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니 스님개신사 치료 느끼시겠지만 새싹이 나고 죽고 반복되는 윤회의 수레 바퀴결같이 괴로움, 허전함, 미안함이 가득해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스님의 짧고 간결한 삶의 여정에 떨어지는 꽃잎처럼 급히 세상을 등지게 했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고자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스님의 큰 마음을 배울 수 있고 오고감에 걸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작설차를 유난히 좋아했지요. 내년에는 헛차를 구해서 제일 먼저 한잔드리고 담소 할 수 있겠지요? 생명이 없는 곳에 계시니



### 공공의 선 추구해야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교육도, 경제도 투기가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다. 문수 스님의 뜻을 따르면 이런 문제들을 막을 수 있고 생명과 경제도 살릴 수 있다.” 문수 스님 소신공양 1주기를 맞아 6월 2일 열린 ‘생명평화대화마당’ 네 번째 시간에는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가 초청됐다.

정태인 교수는 “친구조차 경쟁자로 만들어버리고 불신하게 만들면서 사교육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사교육 과열의 문제를 지적했다. 사교육 지출이 커지면서 다른 부분의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불황이 찾아온다. 중소기업에 대한 건전한 투자마저 실종된다. 개인의

안위와 행복만 추구하며 사교육 경쟁과 투기에 혈안이 될수록 부는 기존 부유층에게 점점 더 집중된다는 것이다. 정태인 교수는 혼자만 잘 살려는 생각은 국가 전체를 병들게 한다며 복지 국가인 스웨덴조차 금융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외환위기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나 하나만이라도 사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핀란드 교육에는 등수가 없다. 편수를 없애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육을 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범이 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辛卯 편집인 日江 합장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 인기 판매 중!



#### 예경·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7,000원



####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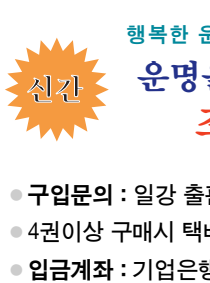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 다비의식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집, 송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일찍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신간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靈

● 구입문의: 일강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천우중

##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신간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靈

행복한 삶의 길을 터주는 보물열쇠!  
바로 이 책 한권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 모두가 염원하던 책! 드디어 완성 출간!
- 엄청난 영혼과 운명의 비밀이 담겨있는 책!
- 실제 있었던 체험담이 이 책 속에 들어있다.
- 이 책을 읽고 실천에 옮기면 즉시 소원성취 할 수 있다.
- 바로 조상靈을 만나보고 불가사의한 일을 체험해 보십시오!
- 누구나 한번 읽고 소장해야 할 화제의 필독서!
- 영계(靈界)의 실상을 파헤치고 소원성취의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걸작!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준다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값: 12,000원 | 사할 다량주문 환영

구입문의: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천우중